

현대중국어 ‘(不)一会儿’ 구문의 생성 조건과 기제 연구

정은*

【목 차】

1. 서론
2. ‘(不)一会儿’ 구문의 특징
3. ‘(不)一会儿’ 구문의 생성조건
4. ‘不一会儿’ 구문의 생성기제
5. 결론

【초록】

본고에서는 주관성을 기저로 ‘一会儿’과 ‘不一会儿’ 구문의 생성조건을 분석하여 두 구문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一会儿’은 객관량과 주관대량 및 주관소량을 나타내고, ‘不一会儿’은 주관소량만을 나타내며 주관성이 더 강조된다. 그 중 ‘不’는 주관정태표지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두 구문 사이에 양의 등급성을 구현한다. 나아가 ‘不一会儿’ 구문의 주관성 획득 과정 및 부정표지사가 여전히 구문에 존재하는 내부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不)一会儿’ 구문은 전체는 부분을 우선한다는 인지적 현저성을 근거로 잉여부정구문으로 부호화된 구문 전체를 우선 지각한 다음 구성소로서 부정표지사의 정보를 지각하고 선택 배치한다. 이때 구문 내 부정표지사 ‘不’의 주관성이 강요되며, ‘不’는 주관소량의 표지사로서 구문의 표의에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은 채 문장의 표면에 명시되어 화자의 강한 주관정태를 전달함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不)一会儿, 주관량, 정태, 강요, 현저성

* 신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kennon@hanmail.net)

1. 서론

현대 중국어 속 부정표지사 ‘不’는 부정의미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부사이며, ‘我去学校’와 ‘我不去学校’처럼 ‘不’를 덧붙인 후 긍정과 부정의 대립 형식을 형성한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 속에 일종의 예외적인 언어현상으로 잉여부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差一点儿没摔倒’와 ‘小心别感冒’처럼 부정형식으로 긍정의미를 나타내는, 다시 말해 부정표지사가 부정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표지로만 존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대칭 현상은 학계 내에서도 이미 많은 주목을 받아 잉여부정의 통사·의미특징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화용기능이나 인지기제 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연구 성과 또한 상당하다. 그 중 ‘(不)一会儿’ 구문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沈家煊(1999)은 인지와 화용의 관점에서 ‘一会儿’과 ‘不一会儿’ 구문에서 대립의 소실은 심리 기대값의 증감으로 결정되며 유표적 현상임을 논의하였다. 张谊生(2004, 2006)은 표현기능의 관점에서 ‘(不)一会儿’ 구문을 시량과 도량을 나타내는 잉여부정 유형으로 분류하고, 잉여부정 형성원인의 관점에서 부정사 ‘不’는 주관정태를 나타내는 일종의 보조수단으로 주관적 부정판단을 나타내며, 판단의 근거는 사람들의 객관적 상식과 인지모드라고 논의하였다. 刘长征(2006)은 통사 및 의미의 관점에서 ‘一会儿’과 ‘不一会儿’을 분석하고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의미기능상의 차이라고 논하였다. 陈又瑄·郑紫(2006)은 ‘一会’가 동사에서 시간사로 허화되는 문법화의 연변체적을 고찰하고 문법화의 원인과 변화 기제를 분석하였다. 이상 학자들의 연구는 ‘(不)一会儿’ 구문에 관한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지만 이 구문의 긍정의미와 부정표지사의 부정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 현상 및 부정표지사가 여전히 구문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내부원인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不)一会儿’ 구문의 특징 및 생성 조건을 살펴보고, 나아가 ‘不一会儿’ 구문의 생성 기제 및 부정표지사 ‘不’가 구문 내에 존속할 수 있는 내부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不)一会儿’¹⁾ 구문의 특징

1) 毛修敬(1985:67)은 ‘不一会儿’을 ‘没一会儿’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량을 나타내는 ‘不/没一会儿’ 잉여부정 형식에서 ‘不’와 ‘没’는 때로 호환할 수 있고, 모두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관적 소량을 나타내며, ‘不’와 ‘没’는 주관표지사이다. ‘不’와 ‘没’가 상대적 동일성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좀 더 비교가 필요하지만 본고의 논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BCC 코퍼

‘一会儿’과 ‘不一会儿’ 구문은 부정표지사 ‘不’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긍정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不’는 형태상 잉여성분으로 인식되었다.²⁾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³⁾

① 别哭了, (不)一会儿妈妈就回来了. 울지마, 곧바로 엄마가 돌아왔잖아.

② 偶尔抬起头望望罗大方, (不)一会儿, 仍又恢复了原来的姿态.

가끔 고개를 들어 罗大方을 한 번 쳐다보고, 곧 다시 원래의 자세를 되찾았다.

위 두 예문은 ‘不’의 존재여부가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의 대립형식이나 일반적으로 ‘不一会儿’과 ‘一会儿’이 나타내는 시간 개념은 어떤 차이도 없으며 부정형식 속 부정사 ‘不’는 통사상 잉여성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문장 속 ‘一会儿’을 모두 ‘不一会儿’로 호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대립형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차이는 ‘一会儿’과 ‘不一会儿’이 의미상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一会儿’과 ‘不一会儿’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몇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잉여부정형식 ‘不一会儿’ 구문이 일부 통사조건에서 제약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대부분 두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아래에서는 그러한 의미 차이에 주목하여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一会儿’과 ‘不一会儿’은 모두 부사어, 관형어, 시량보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간이 아주 짧음을 나타낸다.

③ 饭(不)一会儿就做好了. 밥이 잠깐 사이 다 되었다.

④ (不)一会儿功夫, 师生俩就到达了目的地.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과 제자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스에서 검색된 양자의 사용빈도는 12:1로 큰 차이를 보였고 ‘不一会儿’의 사용빈도가 ‘没一会儿’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不一会儿’에 한해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2) 毛修敬(1985)은 “没”“不”“不该”“别” 등은 부정의미를 나타내지만 일부 문장 어느 한 성분 앞, 일부 구의 앞이나 중간에 상술한 부정사의 첨가 여부와 상관없이 의미가 모두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형식이 상반되나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을 대립형식(对立格式)라고 칭하면서 아울러 화자의 주관적인 바람이든 청자의 심리적 반응이든 “不一会儿”과 “一会儿”이 나타내는 시간 개념은 어떤 차이도 없다고 하였다. 毛修敬, 『汉语里的对立格式』, 『语言教学与研究』, 第2期, 1985, p.59, p.68.

3) 본고에 제시된 예문은 참고문헌의 예문 또는 북경어언대학 BCC 코퍼스(北京语言大学BCC现代汉语语料库, <http://bcc.blcu.edu.cn/>)에서 인용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기도 하였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의 예문을 인용하였을 경우 예문에 따로 직접 명시하였다.

⑤ 有一次我穿着军装在北京西站接人, (不)一会儿时间, 差不多有20个人先后走上前与我搭话. 한 번은 내가 군복을 입고 북경서역에서 누군가 마중하는데, 잠깐 사이에 거의 20여 명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에게 말을 건넸다.

⑥ 他去了(不)一会儿就回来了. 그는 갔다가 곧 돌아왔다.

위 예문들은 각각 부사, 관형어, 보어로 활용된 예들이며, 긍정형식의 ‘一会儿’이든 부정형식의 ‘不一会儿’이든 모두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이때 부정부사 ‘不’는 의미상 이미 논리부정 의미를 상실하고 시간이 짧음을 나타내는 잉여부정형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중 예문 ④-⑤에서 ‘(不)一会儿’은 관형어로 ‘一会儿的功夫’, ‘不一会儿的功夫’와 같이 ‘功夫, 时间’ 앞에 사용하여 관형어로 활용되며 또한 ‘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예문들은 구의 층면에서 양자 모두 적격한 언어형식이지만 문장 안에서 내포하는 의미기능의 차이로 인해 자유롭게 호환할 수 없다.

⑦ 你(*不)一会儿再来个电话吧. 잠시 뒤에 다시 전화주세요.

⑧ 快到深圳了吧? ——还有一会儿. 곧 深圳에 도착하죠? ——아직 좀 남았어요.

⑨ 静静地看了李云(*不)一会儿, 见他并不专心作画, 似有别的意思.

조용히 李云을 잠시 보았는데 그가 집중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니 다른 생각이 있는 듯하다.

⑩ 办公室主任走来汇报: 有港商找他. 已在会客室等了一会儿了.

사무실 주임이 걸어와 보고하길 홍콩상인이 그를 찾아와 회의실에서 기다린 지 한참 되었어요.

위 예문들에서 ‘一会儿’은 ‘不一会儿’로 대체할 수 없는데, 이는 ‘一会儿’과 ‘不一会儿’이 나타내는 양의 개념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문 ⑦-⑨과 같이 ‘一会儿’이 객관량을 나타낼 때 ‘不一会儿’로 대체할 수 없고, 또 예문 ⑩과 같이 ‘一会儿’이 주관대량을 나타낼 때 ‘不一会儿’로 대체할 수 없다. 이는 통사적으로 적격한 문장이지만 의미상 배척하는 것으로, ‘不一会儿’로 대체하면 의미상 상하문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 또한 ‘不一会儿’은 동사 뒤에서 동작의 지속시간이 짧음을 나타내지만 뒤에 반드시 다른 한 동작이나 다른 사건의 발생 또는 ‘就/便’으로 이어지는 다른 소절이 바로 연이어 나와야 한다.

다음으로 앞서 ‘一会儿’은 부사어로서 동작 발생의 시간 즉 후행하는 동작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때 후행하는 동작은 미연(未然) 즉 발생하지 않은 동작일 수도 있고, 이연(已然) 즉 이미 발생한 동작일 수도 있다. 그러나 ‘不一会儿’은 일부 문장형식의 제약을 받는데, 부정문에 사용할 수 없고

미연(未然)의 동작을 나타낼 수 없다.⁴⁾

⑪ 我们现在休息(*不)一会儿吧。우리 지금 잠시 쉬어요.

⑫ (*不)一会儿回家做什么吃呢? 이따 집에 가서 뭐 해 먹지?

⑬ 母亲们给孩子打电话, 没说几句就因‘我忙着呢’(*不)一会儿再说吧’而被挂断。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몇 마디 채 하지 않고 ‘지금 바빠’, ‘이따 다시 얘기 해’를 이유로 전화를 끊어버린다.

⑭ 过了(不)一会儿, 看到有两个人已经站了起来。

잠깐(의 시간이) 지났고, 두 사람이 이미 일어난 것을 보았다.

⑮ 这一切不公平的事, 她考虑了(不)一会儿也就过去了。

이 모든 불공평한 일에 대해 그녀는 잠깐 고려하고는 넘겼다.

⑯ 他没过(*不)一会儿就回来了。그는 얼마 안 있어 돌아왔다.

예문 ⑪-⑬에서 동작은 모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연(未然)의 사건이고, 예문 ⑭-⑮의 동작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며, 예문 ⑯은 부정문에 사용된 예이다. 여기서 ‘一会儿’ 앞에 동사 ‘过’와 완료태 ‘了’의 첨가 가능여부에 따라 이연(已然)과 미연(未然)을 구분할 수 있다. 만약 ‘一会儿’ 뒤에 이미 발생한 동작이 후행하면 예문 ⑭와 같이 ‘一会儿’은 모두 ‘过了一会’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过了一会’의 뒤에는 이미 발생한 동작만 이어질 수 있으며 미연(未然)의 동작은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미연(未然)의 사건을 나타내는 예문 ⑪-⑬에서 ‘一会儿’은 ‘过了一会’로 대체할 수 없고 ‘过了一会’로 대체할 수 있으며 또한 ‘不了一会’로 대체할 수도 없다.⁵⁾ ‘不了一会’이 보어가 되는 상황은 아주 드물며 예문 ⑭-⑮과 같이 ‘过了, 考虑了’ 등 완성태 표지 ‘了’를 수반하는 동사 뒤에만 출현할 수 있고, 동작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一会儿’은 두 개의 반의어 앞에 ‘一会儿……, 一会儿……’의 대구형식으로 두 가지 상황이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거나, 두 가지 동작이 연결되어 짧은 시간 동안에 전후로 계속 행해지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혹은 술어 앞(부사어) 혹은 뒤(시량보어)에 중첩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不了一会’은 이러한 용법이 없으며, 이러한 형식 속 ‘一会儿’은 ‘不了一会’로 교체할 수 없다.

4) 毛修敬(1985:68)도 미래 상황을 서술하는 ‘一会儿’은 ‘不了一会’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외, 刘月华(2002)는 동량보어와 시량보어로 구성되는 명령문일 때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一会儿’은 명령문에 활용되어 명령문의 어기를 완회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不了一会’은 명령문에 사용할 수 없다. 위의 설명은 ‘不了一会’을 명령문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丁雪妮, 「关于‘一会儿’与‘不了一会’」, 『语言文字修辞』, 第12期, 2014, p.15.

5) 刘长征, 「一会儿’和‘不了一会’」, 『世界汉语教学』, 第3期, 2006, p.50.

①⑦ 于是,他就(*不)一会儿向左拐拐,(*不)一会儿向右拐拐,在躲张以林的炮弹。그래서 그는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하며 张以林的 포탄을 피하고 있다.

①⑧ 他们唱起歌来,(*不)一会儿是男孩子领唱,女孩子齐声伴唱,(*不)一会儿是分成高低两个声部合唱。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남학생들이 선창하고 여학생들이 함께 소리 내어 따라 부르다가 고저 두 성부로 나눠 합창하였다.

위 예문에서 ‘一会儿……, 一会儿……’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 상반되는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과 합창하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 짧은 시간 동안 연결되어 전후로 계속 행해짐을 나타낸다. 잉여부정 ‘不一会儿’ 형식은 위 예문들과 같이 대구 형식에 사용할 수 없다.

한편 ‘一会儿’은 확정되지 않은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잠시, 잠깐 사이에, 곧’의 의미로 자체적으로 모호성을 지닌다.

①⑨ (不)一会儿,他就睡着了。잠깐 사이에 그는 잠들었다.

②⑩ (不)一会儿,天空就放晴了。잠시 후에 날이 맑게 개었다.

위의 두 예문에서 화자가 말하는 ‘一会儿’의 시간은 이 문장을 발화한 화자라 하더라도 정확한 시간으로 계량해내기 힘든데, 양 범주의 모호성으로 불확정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미의 모호성은 일종의 인지현상으로 동일한 객관사물에 대해 사람들의 주관적 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형성할 때 종종 사람들의 주관태도를 개입하여 서로 다른 색채를 부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一会儿’에 다시 부정부사 ‘不’가 더해져 화자는 구체적인 시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시량의 많고 적음에 대해 주관적인 추측을 한다. 이러한 양을 객관적으로 헤아릴 수 있다하더라도 말의 단조로움과 단호함을 피하기 위해 화자는 일종의 완곡 방식을 취하는데 ‘양이 적음’이라는 정보를 주고 양에 대한 절대적 묘사를 피하는 화용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一会儿’은 소량 즉 짧은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 객관성을 지니고, 객관량을 나타낼 수도 주관량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不一会儿’은 ‘一会儿’ 앞에 부정사를 첨가한 후 소량에 대해 부정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양이 극도로 적다’, ‘시간이 극도로 짧다’를 나타낸다. 전체 의미상 충분한 시간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의미하는 문장에서는 ‘不一会儿’을 활용할 수 없다. 즉 화자는 ‘不一会儿’을 통해 주관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의 시점을 드러내어 언어의 주관성과 여기를 더욱 강하게 표현한다.

3. ‘(不)一会儿’ 구문의 생성 조건

2장에서 ‘一会儿’과 ‘不一会儿’ 구문의 통사적 차이는 두 구문이 표출하는 양의 개념과 의미의 모호성 및 이연(已然)과 같은 의미상의 차이가 통사제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구비하는 ‘(不)一会儿’ 구문의 생성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의미, 화용, 인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표현기능을 살펴보면 ‘不一会儿’ 잉여부정형식에서의 ‘不’는 논리부정과 다른 주관성 표지이다. 그 역할은 객관량에 대한 감량을 진행하는 주관평가이며, 비교적 강한 주체 의식을 가진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평가의 근거를 부정표지사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삼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관성과 주관량

양(量)이란 객관적 존재로서 인간이 객관세계를 관찰·파악·설명하는 수단이나 방식으로 이런 객관세계의 객관적 양은 인간의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발달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객관세계를 반영하는 인지범주가 이루어지며, 이런 인지범주는 언어에 투사되어 언어화된 양범주(量范畴, quantity category)가 이루어진다. 이런 언어화된 양범주는 객관세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즉 화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에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한 객관적 양범주도 있고, 화자의 주관성⁶⁾을 넣어서 주관적으로 객관세계를 판단하는 즉 객관적인 사실에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태도 등 주관 평가를 반영한 주관적 양범주도 있는데 전자를 가리켜 객관량(客观量, objective quantity)이라 하고, 후자를 가리켜 주관량(主观量, subjective quantity)이라고 한다. 언어화된 양범주에 이런 심리적인 평가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기준량(基準量)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량을 참조하여 양범주에 대해 많거나 적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량을 참조량(参照量, reference quan

6) 사람들은 언어를 표현할 때 많은 적은 주관적 바람 성분을 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태도를 표명하거나 감정과 바람을 드러내는데 이처럼 발화 주체가 담화과정에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을 주관성(主观性, subjectivity)이라고 하며, 원래 주관성을 띠지 않던 언어형식이 통시적 변화과정-실사의 허화(虛化) 또는 문법화(語法化, grammaticalization)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상 점차 주관성을 띠게 되는 것을 주관화(主觀化, subjectivisation)라고 한다. 본문의 주관성, 주관화 및 주관량에 관해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2013, pp.304-334, 이선희, 「현대중국어의 주관량(主觀量) 대소전도현상과 어순변화」, 『중국어언어연구』, 제17집, 한국중국어학회, 2003, pp.226-230 및 양해승, 「한국어의 주관량(主觀量, Subjective Quantity) 표현 연구」, 『국어학』, 제71집, 국어학회, 2014, pp.128-136.

tity)이라고도 하며, 화자가 실제량에 대해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양에 대한 인식에 주관성을 부과하여 형성된 개념이 바로 주관량이다.⁷⁾ 참조량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많도와 적다로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될 때 주관대량(主观大量, large subjective quantity)으로 보고,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될 때 주관소량(主观小量, small subjective quantity)으로 본다.⁸⁾

‘一会儿’과 ‘不一会儿’은 모두 ‘잠시, 곧’ 등의 의미로 아주 짧은 시간개념을 표현하는 언어형식이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객관적 형식의 하나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체계이며, 물질의 운동, 변화의 지속성과 순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간은 길이로 도량하는 것이며, 시간의 길이도 양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 존재이며 객관성을 지닌다. 양의 관점에서 ‘一会儿’과 ‘不一会儿’은 모두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간의 길고 짧음은 하나의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刘长征(2006)은 이러한 개념을 ‘一个小时’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一个小时’는 시간축에서 고정된 길이이다. 그러나 ‘一个小时’는 ‘一天’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一分钟’과 비교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는 객관적 상대성이다. 이에 반해 ‘一分钟’과 ‘一个小时’에 대해 동일한 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一分钟’을 길게 느낄 수도, ‘一个小时’를 짧게 느낄 수도 있으며, 혹은 동일한 시간 ‘一个小时’에 대해 각기 다른 주체가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데 이는 주관적 상대성이다. 沈家煊(1999)은 보다 앞서 ‘一会儿’과 ‘不一会儿’의 주관적 상대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一会儿’과 ‘不一会儿’을 예로 삼아 긍정과 부정의 대립이 소실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는데, ‘一会儿’은 시간상의 극소량으로, 극소량은 심리관점의 차이에 따라 극소량을 나타낼 수도 또 극대량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 ‘一会儿’은 화자의 기대라는 관점에서 ‘0’에 상대되는 양일 수도 있고 비교적 큰 양에 상대되는 양일 수도 있는데, ‘0’에 대립되는 ‘一会儿’은 (+)값으로 기대량에 있어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비교적 큰 양에 대립되는 ‘一会儿’과 ‘不一会儿’은 (-)값으로 기대량에 있어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값은 앞서 설명한 객관량 및 주관대량과, (-)값은 주관소량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계를 예

7) 양해승, 위의 논문, pp.134-137.

8) 이선희, 위의 논문, pp.229-230. 현대중국어에서 주관량은 어휘, 음운변화, 어순변화, 중첩, 중복, 메타언어적 수단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표현된다. 예를 들어, 가. 现在三点。나. 现在都三点了。다. 现在才三点。에서 (가)는 객관적 시간 3시를 나타내고, (나)와 (다)는 객관적 3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문장으로 각각 시간의 빠름과 느림을 나타내며, 이러한 주관량은 부사 ‘都’와 ‘才’, 어기사 ‘了’ 즉 어휘적 수단을 통해 표현한 경우이다. 또 (湖南人)不怕辣。(四川人)辣不怕。(云南人)怕不辣。에서 세 문장은 모두 세 단어 ‘辣’‘不’‘怕’로 구성되었으나 이들의 배열순서에 따라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정도성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어순변화를 통한 주관량의 표현이다.

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⁹⁾

- ㉑ 我们休息了一会儿。 우리는 잠시 쉬었다.
- ㉒ 我们只休息了一会儿。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
- ㉓ 我们休息了好一会儿。 우리는 한참 쉬었다.
- ㉔ *你们休息不一会儿吧。 우리 잠시 쉬자.
- ㉕ 我们只休息了不一会儿。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
- ㉖ *我们休息了好不一会儿。 우리는 한참 쉬었다. (刘长征 2006:47-48)

‘一会儿’은 비록 그 길이가 명확히 고정된 양은 아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내고 그 객관성은 시간축에서도 일정한 길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즉 시간사 ‘一会儿’은 객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어휘통사수단과 결합하여 주관량도 나타낼 수 있다. ‘一会儿’과 달리 ‘不一会儿’은 객관량은 나타낼 수 없고 주관량만을 나타낼 수 있다.¹⁰⁾ 위 예문에서 ‘一会儿’과 ‘不一会儿’은 모두 술어 뒤에서 시량보어로 활용되고 있다. 예문 ㉑의 ‘一会儿’은 그 양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잠시잠깐이라는 일정한 시간 동안 쉬었다는 즉 객관량을 나타내고, ㉒의 ‘一会儿’은 동작과 관련된 수량을 제한하는 부사 ‘只’와 함께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㉓의 ‘一会儿’은 수량이나 시간이 많음을 강조하는 부사 ‘好’와 함께 주관대량을 나타낸다.¹¹⁾ 이에 반해 ㉔와 ㉖은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데 통사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 배척하는 것으로 ㉔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객관량이지 주관량이 아니기 때문에 ‘不一会儿’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㉖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화자가 주관적으로 비교적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주관대량이기 때문에 ‘不一会儿’을 사용할 수 없고 ‘一会儿’만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一会儿’이 나타내는 짧은 시간 개념은 객관성을 지니고, 특정한 통사수단과 결합하여 객관량을 나타낼 수도 주관량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주관량은 다시 주관소량을 나타낼 수도, 주관대량을 나타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不一会儿’은 주관소량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부정부사 ‘不’는 이러한 주관소량의 표지로서 역할을 한다.¹²⁾

9) 刘长征, 같은 논문, pp.47-48.

10) 예를 들면, ‘就, 才’ 등 주관량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사들과 앞뒤에서 공기할 수 있는 지 등이 다. 张谊生(2006)은 감량표지 ‘不’와 ‘没’는 ‘就’만 공기할 수 있고, ‘才’는 증량표지 ‘好’와 공기할 수 있으며, 이는 주관량 표현 규칙의 제약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11) 吕叔湘 主编,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1999, p.678. ‘只’와 ‘好’는 각각 부사로 ‘限于与动作有关的事物的数量.’, ‘强调多或久. 用在数量词、时间词或形容词‘多、久’前. 数词限于‘一、几.’’로 해석되어 있다. 张谊生은 ‘好’를 ‘一些、一会、一阵、半天’ 등과 공기할 수 있는 주관증량 표지사로 분류하였다. 张谊生, 「试论主观量标记“没”、“不”、“好”」, 『中国语文』, 第2期, 2006, pp.127-128.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我们只休息了一会儿’과 ‘我们只休息了不一会儿’ 양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㉗ 不一会儿, 水开了。曹沾满以为翠儿就该泡茶了, 没曾想, 他从容容打开盖子, 用竹水斗舀了一点冷水, 加了进去, 盖好, 又煮了起来。一会儿, 水又开了。(沈家煊 1999:16) 잠시 후 물이 끓었다. 曹沾满은 翠兒이 차를 우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는 느긋하게 뚜껑을 열고 대나무 물바가지로 찬물을 좀 퍼서 넣고 뚜껑을 덮고 다시 끓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물이 다시 끓었다.

위 문장에서 같은 의미의 앞뒤 두 문장 중 하나는 ‘不一会儿’을 다른 하나는 ‘一会儿’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沈家煊(1999)은 ‘一会儿’과 ‘不一会儿’이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두 구문은 의미차이를 개입치 않고 사용한다고 하였고, 毛修敬(1985)은 두 구문이 나타내는 시간 개념은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면적 형식은 상반되나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기타 다른 잉여부정형식에서 부정부사의 기능과 역할이 그러하듯 잉여부정형식 ‘不一会儿’이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고 아래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태와 시태¹³⁾

앞 절에서 주관성은 모종의 실체 혹은 상황에 대해 화자가 발화와 동시에 그 발화에 대한 화자 자신의 입장, 태도, 감정을 표출하는데 이러한 화자의 발화의 흔적을 가리켜 주관성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세계의 어떤 실체나 현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观点, viewpoint)’과 동일시 될 수 있는데 인간이 발화시 주어진 담화 상황을 화자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각하여 발화할 때 선택되는 관점을 말한다.¹⁴⁾

12) 刘长征, 위의 논문, pp.47-48.

13) ‘modality’는 정태, 양태, 양상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중국어 전통문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정태(情态)라고 불렀다. ‘aspect’는 시태, 시상, 상, 동태 등으로 번역되는데 본고의 논의에서는 각각 정태(情态), 시태(时态)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14) Finegan(1995)는 화자의 관점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의 시각(视角, perspective), 감정(情感, affect), 인식(认识, epistemic modality) 3가지로 나누었다. 그가 구분한 ‘화자의 시각(perspective)’은 세계의 실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관찰 각도 혹은 실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서술의 출발점을 말하며, ‘화자의 감정(affect)’은 세계의 실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감정, 정서, 의향, 태도이며, ‘화자의 인식(epistemic modality)’은 세계의 실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다. 진준화, 「중국어 어기(语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subjectivity, mood, sentence types, modality’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한국중국언어학회, 2018, p.70.

그리고 화자의 관점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의 감정 및 인식을 나타내는 표현은 ‘정태’(情态, modality)로 논의되어 왔다.¹⁵⁾ 중국어 언어현실에 입각하여 현대 중국어에서 정태를 汤廷池(2000)는 문장의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관점 혹은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제에 대한 진위, 인식, 바람, 의무, 평가,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 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彭利贞(2005)은 화자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진리치 혹은 사건의 현실성 상태에 대해 표현하는 주관적 태도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의 관점은 인식과 감정이라는 개념적 측면에서 주관성으로, 화자의 태도는 인식과 감정의 표현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주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면, 정태는 주관성의 기저아래 주관화된 표현형식을 매개로 화자 자아의 감정 및 태도가 문장 명제에 대한 화자의 관점과 태도로 표현되어진 의미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¹⁶⁾ 본 절에서는 먼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不一会儿’ 구문이 표현하는 주관적 인식정태를 고찰하고 주관소량의 의미를 지니는 ‘一会儿’과 ‘不一会儿’의 차이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一会儿’과 같은 일부 단어는 종종 부정표지사와 결합하여 잉여부정을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주관적 바람의 외재하는 표현으로 화자의 주관적 경향 즉 주관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¹⁷⁾ 이러한 단어들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부정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沈家煊(1999)은 이러한 내포의미를 함의(衍推义, entailment)라 칭하였는데, 일종의 순수한 논리추론의미로, 문장의 고유하며 안정적이고 불변하는 의미성분이다. 그러나 그 부정의미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때 화자는 부정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언어 표층에 부정표지사를 첨가하여 주관적인 부정강조를 나타냄으로써 문장의 함의가 문장의 표면에 명시되게 한다. 그러나 부정의미를 내포하는

15) 정태에 관해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지만 Lyons(1977)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정태는 문장 중에서 명제 이외의 성분이나 명제를 수식하는 성분이다. ② 정태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 및 관점을 표현하는 문법성분 혹은 문장에 내재된 주관성을 특징을 갖는다. ③ 정태는 문장내에서의 비사실성 성분을 가리킨다. 즉, 정태는 미래 사건의 예측, 의도, 바람, 희망, 목적적 등을 포괄하는 가정정보(hypothetical information)와 관련이 있다. 또한 현실 사건과도 관계를 가지는데, 이 사건이 실제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정태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혹은 명제가 묘사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및 관점을 가리킨다. 그는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과 의무양상(denotic modality)으로 나누었다. 박정구, 『중국어 화용론』, 신성출판사, 2005, pp.247-248 및 진준화, 위의 논문, p.78을 참고하여 수정 인용.

16) 정태의 유형구분은 학자들마다 그 분류기준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Palmer(1986)는 이를 바탕으로 정태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유형학적 입장에서 명제양태다. 그리고 Lyons(1977)는 화자의 태도와 관점 즉 정태의 유형을 인식정태(认识情态, epistemic modality)와 의무정태(道义情态, denotic modality)로 구분하였다. 진준화, 같은 논문, p.78-80 수정 인용함.

17) 현대 중국어에는 ‘不一会儿’ 이외 다양한 잉여부정형식이 존재하는데 张谊生(2004)은 잉여부정을 4종류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는 张谊生(2004)을 참고할 것.

단어에 부정표지사를 덧붙인 뒤에도 전체 구조의 표의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은 채 여전히 부정의미를 나타내며, 이중부정으로 인한 긍정의미도 형성하지 않는다. 즉 이때 부정표지사는 이미 부정함의를 상실하고 잉여성분으로 주관성의 표지가 된다. 이보다 앞서 Jespersen(1924)도 원래의 문장이 부정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나 명확히 표현되지 않을 때 화자는 오해를 방지하고자 부정의미를 강조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실제로는 잉여성분인 부정사를 첨가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들이 소극의미를 나타내고 좋지 않은 결과를 의미할 때 이는 사람들이 기대 또는 희망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에 대한 부정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언어 성분이 부정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성분 뒤에 놓이게 되었을 때, 화자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돌출시키기 위해 부정성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一会儿’은 본래 소량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화자는 시간의 짧음을 강조하기 위해 소량을 나타내는 단어 ‘一会儿’ 앞에 부정사를 첨가하여 주관상이 소량보다 더 작은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 본래 최소량에 대한 부정은 전체량에 대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때의 소량에 대한 부정은 다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사는 이미 부정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주관소량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주관소량 의미를 강조하는 ‘不’에 대해 张谊生(2006)은 실제 표현기능면에서 화자의 주관적 정태를 나타내는 전형적 양표지이며, 객관량에 대한 감량을 진행하는 주관적 평가로 일종의 인식정태(epistemic modality)이며, 이미 의미 진리치의 부정에서 전체 사건이 차지하는 시간과 수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전향되었다고 지적하였다.

㉓ 我们只休息了一会儿。우리는 잠깐만 쉬었다.

㉔ 我们只休息了不一会儿。우리는 잠깐만 쉬었다.

의미의 진리조건적 관점에서 예문 ㉔의 부정사는 부정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의미 진리값이 제로이며, 표현기능의 관점에서 하나의 주관표지일 뿐만 아니라 언어 표층에 남아 화자의 주관적 정태를 전달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사람들 마음 속 객관적 상식과 인지모드에 존재하는 것이다.¹⁸⁾ 화자는 어떤 상황의 발생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빠르거나 적거나 이르거나 잠깐이라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이 시량 앞에 부정사 ‘不’를 첨가함으로써 놀람, 감탄과 같은 교제효과를 생성한다. 화자의 주관적 바람의 외부 표현으로 화자의 주관적 인식정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18) 어떤 인지기제에 의한 것인지 4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부정표지사는 문장에서 부정의미를 나타내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존재가치를 지니며, 표현기능면에서 화자의 주관적 정태를 나타내는 주관표지사이다.

다시 말해, 정태는 화자가 서술한 명제 혹은 사실적 상태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래 자체적으로 주관성을 지닌다. 정태의미는 정태동사를 통해 표현할 수 있고 정태부사 등 어기를 통해 구현할 수도 있는데, 부정과 정태는 개념구조상 유기적 연관이 존재하고 있다. 화자가 말에서 관심을 가지는 발화 초점 혹은 주관적 관점이 사건 자체나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시간의 길이에 있을 때 사건 자체의 상태와 성질에 대한 의미 진리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량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량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화자의 주관적 인지와 정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不一会儿’ 구문에서 ‘不’는 화자의 시간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의 주관정태표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一会儿’에 비해 ‘不一会儿’이 전달하는 주관정태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며, 또한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로 ‘一会儿’과 ‘不一会儿’의 통사기능과 분포상의 차이도 결정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고 2장에서 ‘一会儿’은 미연(未然)과 이연(已然) 사건에 모두 활용할 수 있으나 ‘不一会儿’은 이연(已然)의 사건을 서술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㉘ 不一会儿, 饭就做好了. 잠시 후 밥이 다 되었다.

㉙ 不一会儿, 整个山谷里, 都是悲伤的哭声了.

잠시 후 산골짜기는 온통 슬픈 울음소리였다.

㉚ *你们休息不一会儿吧. 우리 잠시 쉬어요.

예문 ㉘과 ㉙은 모두 이연(已然)의 의미특징을 가진다. 두 예문 모두 ‘不’를 첨가하여 동작의 발생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름을 나타낸다. 그런데 두 예문에서 심리적 기대와의 비교를 통해 예상했던 시간의 양보다 더 짧은 시간 즉 주관적인 감량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이미 발생한 확정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발생하기 전의 사건이라면 ‘不’는 평가를 진행하는 시간 전제를 잃게 되며, 만약 예문 ㉚를 ‘不一会儿, 饭还没做好’라고 한다면 이는 시간논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에서 예문 ㉚는 비문이 된다.

따라서 ‘(不)一会儿’ 구문은 사용 시에 제약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시태와 정태의 제약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뒤에서 수식하는 동사성분의 의미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不’가 주관소량을 나타낼 때 반드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감량 표지이다.

그렇다면 ‘一会儿’과 ‘不一会儿’이 나타내는 주관소량의 정도 차이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시간축에 나타내는 양 등급의 비교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3) 비경계성 및 양의 등급성

경계가 명확히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계성(有界, boundedness)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비경계성(无界, unboundedness)은 인지세계의 실체인 사물의 공간, 시간, 상태 등의 이산성(离散性)과 연속성(连续性)의 대립과 일치를 다루는 것으로 인류가 공간과 시간 개념을 인식하고 조직하는 기본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인지세계 속 사물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변화 발전하는데 사물은 운동, 변화 등의 과정으로 사건을 형성하고,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시간으로 측정하게 된다. 현실세계는 절대적인 경계성과 비경계성의 구분이 없지만 인지적 관점에서 경계성과 비경계성은 상대적인 것으로 표현과 인지 상의 주관적 시각으로 결정된다. 경계성은 그 특징이 비교적 명확한데 내부구조가 주로 이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개념 ‘一分钟、两分钟’과 같이 수량으로 이런 이산사물을 조직하고 파악할 수 있다. 비경계성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내부구조는 연속적이고 경계의 구분 없이 이어져 있다. 만약 수량으로 이러한 연속 사물을 파악한다면 ‘一杯水、一瓶酒’와 같이 용기 혹은 비자연적이고 고정 불변하는 도량단위의 도움을 빌어야만 한다. 또는 ‘一种看法、一点时间’과 같이 추상개념으로 직접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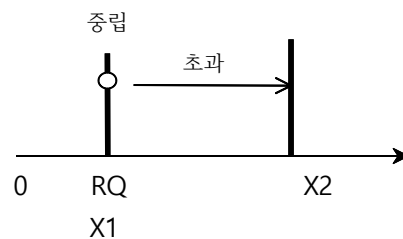
한편 부정은 상대부정과 절대부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부정은 양 등급상의 ‘不及’로 일반적으로 ‘不’로 표시한다. 대부분의 언어 속 부정사는 ‘少于、不及(less than)’을 함의하고 있다.¹⁹⁾ 石毓智(1992)는 이를 근거로 중국어 부정사

19) Jespersen(1924)은 그의 저서 “The Philosophy of Grammar”에서 인류언어의 부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모순(contradictory)과 반대(contrary)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논리개념인 모순은 ‘white(白):not-white(不白), rich(富裕):not-rich(不富裕)’의 관계와 같이 중간 개념이 없이 두 가지 모순 개념을 결합하여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관계인데 이런 통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파생어에도 적용시켜 ‘unhappy(不幸福), impossible(不可能), disorder(无秩序)’ 등도 모순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대의 개념은 ‘white(白)-black(黑), rich(富裕)-poor(贫穷), young(年轻)-old(年老), good(好)-bad(坏), big(大)-small(小)’와 같이 대립하는 두 개념 사이에 하나 이상의 중간 개념이 허락되는 관계이다. 또한 부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모든(혹은 대부분) 언어의 일반 규칙은 ‘不(not)’가 ‘少于、低于’(less than) 혹은 ‘수식어와 0 사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不好’는 ‘差的、次的’를 나타내고, ‘好极了’를 포함하지 않으며, ‘不温’은 ‘温’의 정도보다 낮으면서 ‘温’과 ‘不冷’ 사이이고, ‘温’과 ‘热’ 사이에 놓이는 것이다. 廖序东 等译, 『语法哲学』, 商务印书馆, 2009, pp.499-502. 정은, 『현대 중국어 ‘差一点儿(没)’ 구문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p.26 재인용.

‘不’와 ‘没’도 ‘少于、不及’를 함의하고 있으며, 부정 후에 ‘少于、不及’를 함의하려면 부정의 대상은 반드시 양의 신축성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형용사의 경우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는 비한정량사에 속하는데,²⁰⁾ 예를 들어 ‘天不亮’에서 ‘不亮’은 밝기(0~10)라는 양의 등급에서 기준이 되는 어떤 밝기보다 낮게 측정되는 것 즉 어둠(0)과 밝음(10) 사이(1~9)를 가리키는 것으로 ‘亮’에 대한 정도상의 부정이다. 반면 절대부정은 예를 들어 ‘天还没亮’에서 ‘没亮’은 ‘亮’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으로 밝기라는 양 등급에서 ‘0’ 즉 어둡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一会儿’은 시간량을 나타내며 시간에 대한 도량상의 측정이다. 아주 짧은 시간으로 해석되고 이해되며 측정되는 소량의 부정량(不定量)의 함의를 지닌다. 먼저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에서 X는 주관인지상의 부정량 ‘一会儿’이 미치는 치역범위를 나타내고, RQ(Reference Quantity)는 심리적 참조량을 나타내며, 부정량 ‘一会儿’이 실현된 실제량과 심리적 참조량의 차이 여부 및 상황에 따라 중립, 초과, 미달로 나누어 주관량의 생성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1> 주관대량의 생성원리



위 그림에서 X는 주관인지상의 부정량 ‘一会儿’이 미치는 치역을 나타낸다. 먼저 ‘一会儿’이 위의 그림의 첫 번째 세로선과 같이 심리적 참조량과 실제량 X1이 일치할 때는 객관진술을 나타낸다. 그리고 만약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을 초과하여 X2에 이를 때 ‘一会儿’은 주관대량을 나타낸다.

㉔ 急什么, 再坐一会儿吧. 뭐가 급해요, 잠시 더 앉았다 가요.

㉕ 等了一会儿饭才做好.²¹⁾ 잠시 기다려서야 밥이 다 되었다. (沈家煊, 1999:116)

예문 ㉔은 청자가 가려고 했던 시간 즉 심리적인 참조량이 되는 ‘离去’와의 시간 간격이 ‘0’ 즉 심리적 참조량과 실제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문장은 객관진술을 나

20) 石毓智(1992)는 신축성을 구비하는 단어를 비한정량사(非定量词), 신축성을 구비하지 못하는 단어를 한정량사(定量词)로 구분하고 비한정량사만 ‘不’와 ‘没’로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21) 沈家煊, 앞의 책, p.116 예문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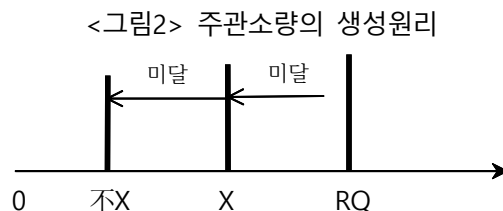
타낸다. 예문 ㉓은 기대하던 ‘做好饭’과의 시간간격이 큰 것으로 심리적인 참조량 보다 실제량이 많다고 평가되는 즉 주관대량을 강조하며, 예문과 같이 ‘才’와 공기할 수 있다. 이때 주관량을 나타내는 부사 ‘才’는 수량사 뒤에서 주관대량을 의미하므로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不一会儿’은 의미상 상충되어 ‘一会儿’과 호환할 수 없다.

반면 양의 값이 심리적 참조량에 미치지 못하고 X에 머무를 때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 보다 적다고 평가된 양을 나타내고 ‘一会儿’은 주관소량을 나타낸다. 이때 부정사 ‘不’를 ‘一会儿’ 앞에 넣을 수 있는데 ‘不’가 다른 단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다. 예를 들어, ‘不去’에서 ‘不’는 ‘去’에 대한 절대부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정사 ‘不’가 ‘一会儿’ 앞에 놓이면 ‘一会儿’이란 양에 대한 절대부정이 아니라 상대부정으로 ‘一会儿’이 나타내는 치역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㉔ 饭(不)一会儿就做好了. 밥이 잠깐 사이에 다 되었다.

㉕ 烈日下的戈壁滩, 即使是生鸡蛋放在地上(不)一会儿就烤熟了. 뜨거운 태양 아래의 고비사막에서는 생달걀도 땅위에 내려놓으면 잠깐 사이에 익었다.

위 예문은 모두 ‘一会儿’과 ‘不一会儿’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一会儿’이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앞에 부정사 ‘不’를 첨가하여 잉여부정을 형성할 수 있고 이때 대부분 ‘就’와 공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就’와 ‘了’ 같은 주관량을 표시하는 단어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주관성은 ‘一会儿’ 및 ‘不一会儿’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就’를 생략하여도 문장 내 주관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관소량은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了’도 생략할 수 없는데, ‘了’는 모두 이연(已然) 즉 이미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생략하게 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원래의 의미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²²⁾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소량을 나타내는 ‘一会儿’의 치역범위는 $0 < X \leq RQ$ 이고, ‘不一会儿’의 치역범위는 0

22) 이선희, 위의 논문, p.242. 대표적 주관량 표지사인 부사 ‘就’와 ‘才’는 수량사와의 어순 관계에 따라 ‘수량사+就/才’일 경우 ‘就’는 ‘快’나 ‘早’의 뜻이고, ‘才’는 ‘慢’이나 ‘晚’의 뜻이다. 반대로 ‘就/才+수량사’일 경우 ‘就’는 수량이 많음을, ‘才’는 수량이 적거나 정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不X<X로, ‘不一会儿’의 주관소량의 의미가 더 현저하게 강조된다. ‘不一会儿’ 중의 ‘不’는 시간량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아니라 시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양의 등급보다 낮음, 기대하는 양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양의 등급 자체는 심리적 제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비경계적이다. 마찬가지로 ‘一会儿’의 주관대량 및 주관소량의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비경계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잉여부정형식의 ‘不’는 시간을 인지할 때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표지로 주관량으로 대표되는 심리공간의 비경계성을 구현하며, 양의 등급성을 나타낸다.

4. ‘不一会儿’ 구문의 생성 기제

한 문장 내에 있는 구성소들 사이의 의미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 충돌(semantic conflict)이라고 한다.²³⁾ 본장에서는 ‘不一会儿’ 구문의 ‘不’는 구문의 긍정의미와 부정표지사의 부정의미 사이에 의미 충돌과 해소의 과정을 거치며 주관성이 강요(coercion)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미 해소 방법과 주관성 획득 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구문과 의미충돌

구문(construction)이란 구성소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언어 표현을 가리키는 것으로,²⁴⁾ 구문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특정 언어 표현의 전체 의미가 구성소들의 의미 및 그것들의 결합 방식에서 도출된다는 의미의 합성성 원리(compositionality principle)와 대립된다. 합성성 원리에 따르면, 특정 언어 표현이 합성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언어 단위는 고정된 의미 자질을 가져야 한다. 구문은 형태-의미 쌍으로 구문의 형태나 의미의 양상은 구문을 구성하는 표현이나 기존의 구문들에서 예측되지 않는다. 즉 구문이란 구성소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언어 표현을 말한다.²⁵⁾ 그런데 한 문장 내에 있는 구성소들 사이의 의미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의미 충돌(semantic conflict)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미

23) 김동환, 위의 책, p.539.

24) Goldberg(1995)는 ‘C가 형식과 의미의 짝(Fi, Si)이고 그 Fi의 어떤 양상과 또는 Si의 어떤 양상이 C의 성분이나 이미 확립된 다른 구문으로부터 엄밀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C를 구문이라고 한다’고 정의하였다. 손영숙·정주리, 『구문 문법』, 한국문화사, 2004, p.24.

25) 김동환, 위의 책, p.249.

충돌이 발생하는 문장은 비문법적인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런 경우 의미적 해소(semantic resolution)의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의미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소는 강요(coercion)라고 부른다. 강요는 구문이 특정한 어휘와 관련해서 특정한 해석이 필요할 때 가능한 것으로, 어휘가 구문 때문에 관련된 해석으로 강요되는 범위 내에서 전체 문장이 문법적이라 판단되며, 강요가 가능하려면 어휘의 본래적 의미와 강요된 해석 사이에 관련성이 필요하다.²⁶⁾

한편 인지언어학의 연구 방법론 가운데 현저성 관점(prominence view)은 표현된 정보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것이다.²⁷⁾ 따라서 현저성은 사람들의 발화가 표현하는 정보에 대한 선택과 배치에 기초한다는 것 즉 인지 주체가 구문 정보를 어떻게 선택하고 배치하여 인지 이유와 근거를 제공하는지, 언어를 조직하고 배열하는 인지의 방법을 설명해 준다.

기존의 ‘不一会儿’ 구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 구문의 긍정의미와 부정표지사의 부정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 현상 및 부정표지사가 여전히 구문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내부원인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현저성과 강요를 전제로 부정표지사의 의미충돌 해소 및 주관성 획득의 인지과정에 대해 초보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不一会儿’ 구문의 비합성성 및 의미구성

부사 ‘不’는 중국어의 전형적인 부정표지사로 의미진리값을 부정하는 기능어이다. 일반적으로 문장 내에서 후행하는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명사성 성분) 등에 대해 부정 평가·서술·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진리값에서 긍정의미와 상반되는 부정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부정부사 ‘不’로 연상되는 ‘부정’이라는 고정적이고 특정한 자질이 있어서 그 자질이 수식받는 성분에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부사와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는 성분의 고정된 의미의 합이라는 의미의 합성성의 원리를 말한다. 그러나 ‘去-不去’와 ‘亮-不亮’의 비교에서 ‘去’의 상반

26) 손영숙·정주리, 위의 책, p.261.

27) Ungerer&Schimid(1996)이 제시한 인지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으로 체험적 관점(xperiential view), 현저성 관점(prominence view), 주의력 관점(attentional view)이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삼라만상에서 가장 현저한 지위를 가지며, 도구를 사용하고, 환경을 조정하며, 의지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인간은 주변의 사물을 보면서 지각적으로 현저한 부분인 ‘전경’과 전경을 뒷받침해주는 바탕인 ‘배경’을 구분하여 파악한다. 이러한 ‘전경-배경’의 대조는 청각 및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언어의 구조에도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15, p.11.

되는 개념으로 ‘不去’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不亮’은 ‘亮-暗’으로 대립하는 두 개념 사이에 하나 이상의 중간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不+X’의 의미를 간단한 집합 교차 이론(set intersection theory)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不+X’ 사이에 반드시 고정된 교차가 발생하거나 두 의미가 합성되어 전체 의미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비합성성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不一会儿’ 구문에서 ‘不’는 ‘一会儿’(짧은 시간)에 대한 논리부정 즉 ‘짧지 않은 시간(긴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록 그 심층의 의미가 양의 범주에서 ‘一会儿’에 미치지 못하는 양의 등급을 구현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정형식의 긍정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不一会儿’ 구문이 나타내는 긍정의미는 부정표지사의 부정의미와 충돌이 발생한다. 이는 ‘不一会儿’ 구문의 의미가 합성성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분의 의미의 총화로 전체의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합성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不一会儿’ 중의 ‘不’는 시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양의 등급보다 낮음, 기대하는 양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량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문의미는 긍정의미로 이해되고, 부정표지사와 의미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충돌은 인지적 현저성으로 해소되며 이 과정에서 ‘不’의 주관성이 강요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대뇌 속에는 사람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저장된 언어지식과 구조가 저장되어 있어 간단한 한 마디의 말이라도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인지단계의 간섭을 받는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이 사건을 긍정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인지주체는 무의식적으로 그 개념을 잉여부정구문으로 부호화하여 사건에 대한 평가, 판단, 추측 등을 표현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부정의미가 충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언어 표층에 부정표지사를 첨가하여 부정강조를 나타냄으로써 문장의 함의가 문장 표면에 명시되게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람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지적 무의식에 의해 잉여부정형식으로 부호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잉여부정구문을 인식할 때 다시 사람들의 대뇌 속에 저장된 언어지식과 구조는 전체는 부분을 우선한다는 인지적 현저성을 근거로 무의식적으로 긍정의미의 잉여부정형식 ‘不一会儿’ 구문 전체를 우선 지각하고 분석한 다음 구성소를 지각하며 이로 인해 부정표지사의 부정의미와 구문의 긍정의미가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 경우 ‘不一会儿’ 구문 전체가 참조점이 되어 구성성분 ‘不’의 정보를 선택하고 배치한다. 이때 부정표지사가 구문에 보류되는 조건으로 긍정의미를 나타내는 잉여부정구문의 특징이 전체가 되어 ‘不一会儿’ 구문 전체는 긍정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不一会儿’ 구문

에 보류되는 구성소인 부정표지사 ‘不’는 주관성을 강요받게 된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사건 발생시간에 대한 기대치보다 적거나 짧거나 빠를 때, 이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객관존재의미를 부정하는 부정표지사 ‘不’를 강요하여 강렬한 주관색채-주관소량의 인식정태를 생성하고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창조된 ‘不一会儿’ 구문은 ‘화자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가 구성되며, ‘不’는 주관소량의 표지사로서 구문의 표의에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은 채 문장의 표면에 명시되어 화자의 강한 주관정태를 전달하고 아울러 놀람이나 감탄과 같은 교제효과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不)一会儿’ 구문의 특징 및 생성 조건과 ‘不一会儿’ 구문의 생성 기제를 살펴보았다. ‘一会儿’과 ‘不一会儿’ 구문은 부정표지사 ‘不’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긍정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不’는 형태상 잉여성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不一会儿’ 구문은 일부 통사조건의 제약을 받고 ‘一会儿’과 호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두 구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주관성을 기저로 두 구문의 생성 조건을 분석하여 두 구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一会儿’은 객관량과 주관대량 및 주관소량을 나타내고, ‘不一会儿’은 주관소량만을 나타내며 ‘一会儿’에 비해 ‘화자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라는 주관성이 더 강조된다. 그 중 ‘不’는 주관정태표지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두 구문 사이에 양의 등급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一会儿’에 비해 ‘不一会儿’이 나타내는 시간이 더 짧다.

나아가 ‘不一会儿’ 구문의 긍정의미와 부정표지사의 부정의미 사이의 의미충돌 해소와 주관성 획득 과정 및 부정표지사가 여전히 구문에 존재하는 내부 원인을 현저성과 강요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不)一会儿’ 구문은 전체는 부분을 우선한다는 인지적 현저성을 근거로 잉여부정구문으로 부호화된 구문 전체를 우선 지각한 다음 구성소로서 부정표지사의 정보를 지각하고 선택 및 배치한다. 이때 구문 내 부정표지사 ‘不’의 주관성이 강요되며, ‘不’는 주관소량의 표지사로서 구문의 표의에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은 채 문장의 표면에 명시되어 화자의 강한 주관정태를 전달하고 아울러 놀람이나 감탄과 같은 교제효과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초보적인 분석으로 ‘不一会儿’ 구문을 포함한 다양한 잉여부정구문에 부정표지사가 구문 내

에 그대로 존재하는 내부 원인 및 인지기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2013, p.249, pp.304-334, p.539.
- 박정구, 『중국어 화용론』, 신성출판사, 2005, pp.247-248.
- 손영숙·정주리, 『구문문법』, 한국문화사, 2004, p.24, p.261.
- 양해승, 「한국어의 주관량(主観量, Subjective Quantity) 표현 연구」, 『국어학』, 제71집, 국어학회, 2014.09, pp.128-137.
- 이선희, 「현대중국어의 주관량(主観量) 대소전도현상과 어순변화」, 『중국어언어연구』, 제17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03.12, pp.226-230, p.242.
-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15, p.11.
- 정 은, 『현대 중국어 ‘差一点儿(没)’ 구문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p.26
- 진준화, 「중국어 어기(语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subjectivity, mood, sentence types, modality’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77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8.08, p.70, pp.78-80.
- 陈又瑄·郑 紫, 「时间词“一会(儿)”的形成与语法化机制」, 『南开语言学刊』, 第1期, 2006, p.64.
- 丁雪妮, 「关于“一会儿”与“不一会儿”」, 『语言文字修辞』, 第12期, 2014, p.15.
- 毛修敬, 「汉语里的对立格式」, 『语言教学与研究』, 第2期, 1985, p.68.
- 廖序东 等译, 『语法哲学』, 商务印书馆, 2009, pp.449-502.
- 刘长征, 「“一会儿”和“不一会儿”」, 『世界汉语教学』, 第3期, 2006, pp.47-50.
- 吕叔湘 主编,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1999, p.678.
- 沈家煊, 『对称和不对称』, 江西教育出版社, 1999, p.116.
- 石毓智, 『肯定和否定的对称与不对称』, 学生书局, 1992, pp.34-46.
- 张谊生, 『现代汉语副词探索』, 学林出版社, 2004, pp.213-221.
- , 「试论主观量标记“没”、“不”、“好”」, 『中国语文』, 第2期, 2006, pp.127-128.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不)一会儿, 主观量, 情态, 压制, 显著性				
Key Words	영문	(bu)yihuir, Subjective Quantity, Modality, Coercion, Prominence				
<div>A Study on the Generation Conditions and Mechanism of '(Bu) Yihuir'((不)一会儿) Construction in Modern Chinese</div> <div>Jung, Eun</div> <p>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generation conditions of '(bu)yihuir[(不)一会儿]' constructions and the generation mechanism of buyihuir construction. Both 'yihuir' construction and 'buyihuir' construction indicate the affirmative sense irrespective of the existence of the negative marker 'bu', which is morphologically recognized as a redundant constituent. However, there occur situations where the 'buyihuir' construction is restricted by some syntactic conditions and is not interchangeable with the 'yihuir', which proves indirectly the existence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structions. Henc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struction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generation conditions of the two constructions on the basis of their underlying subjectivit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yihuir' signifies objective quantity and large subjective quantity and small subjective quantity, while 'buyihuir' only signifies small subjective quantity. 'Buyihuir' emphasizes more the subjectivity of 'a shorter time than expected by a speaker', compared with 'yihuir'. Of it, 'bu' implements the gradability of quantity between the two constructions, as well as acts as a subjective modality marker, and the time represented by 'buyihuir' is short than 'yihuir'. Further, the resolution of meaning clash between the affirmative meaning of 'buyihuir' construction and the negative meaning of the negative marker, the process of acquiring subjectivity, and the internal cause that the negative marker still exists in the construction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coercion and prominence. The whole construction codified unconsciously as a redundant negative construction is perceived first on the grounds of cognitive prominence that the whole takes priority over parts, and then information on the negative marker as a constitutive is perceived and arranged selectively; at this time, the negative marker within the construction is coerced into subjectivity, and 'bu', as a marker of subjective small quantity, is specified on the surface of the sentence without any change in the semantic representation of the construction, accordingly delivering the strong subjective modality of the speaker and also generating the effects of surprise or exclamation at the same tim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정은 / 鄭恩 / Jung, Eun				
	소 속	新羅大學 國際地域學部 中語中國學專業				
	Em@il	kennon@hanmail.net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0.24	심 사 일	2020.11.13	게재확정일	2020.11.20